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

### 여가부 선정...전남지역 유일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등 호평 “성평등 협력체계 더욱 강화”



순천시가 시민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는 하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단계(2022~2026년) 재지정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21개 지자체로부터 2 단계 재지정 신청을 받아 이 중 16개 지자체를 선정했고,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가 재지정 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1단계 기간(2017~2021년) 동안

터 시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골목디자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여성친화 공간조성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여성 자생단체 공모사업 ▲시민참여단의 여성친화 특화사업 발굴 ▲젠더 전문가(활동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와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 받았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 맞게 기존 사업을 보완·확대해 ▲성평등정책 협력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주민참여형 돌봄인프라 구축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및 안심돌봄 구역 조성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5년 간 한층 더 발전된 ‘순천형 여성친화도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주시 남면사무소에서 24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와 여주시의회 전창곤 의장, 박성미 시의회 이아포 특위 위원장 등 섬지역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여수 섬지역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힘모은다

### 시의회-진실화해위 간담회

여주시의회(의장 전창곤)와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여주시 남면 이아포·두록여 사건 섬 지역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여주시 남면 이아포 등에서 시의회 이아포미군폭격사건특위 주최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진실화해위 관계자와 이아포특위 위원 등 20여 명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유족증인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병호 여주시문화유산위원장,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엄길수 이아포사건 위원장, 정광지(부위원장), 이상우, 고희권, 문갑태, 정경철, 이미경, 권석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지난 7월 구성됐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아포·두록여 사건에 대해 “당시 전쟁이 발생한 혼란한 상황에서 피난민 소

개(疎擧) 중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간의 아픔에 공감하며 앞으로 정확한 진상규명과 명예,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창곤 의장은 “늦었지만 조금씩 역사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미 이아포특위 위원장은 “많은 분의 관심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 자리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면 이아포 미군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추진 특별위원회는 박성미(위원장), 정광지(부위원장), 이상우, 고희권, 문갑태, 정경철, 이미경, 권석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지난 7월 구성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보성군, 문화관광융복합단지 ‘다향아트밸리’ 개장

### 보성읍 봉산리에 53억 투입 건립 먹거리·생활·체험 융복합센터



보성읍 봉산리에 문을 연 문화 관광 융복합단지 ‘다향아트밸리’.

문화관광 융복합단지 ‘다향아트밸리’가 지난 24일 문을 열었다. ‘다향아트밸리(이하 아트밸리)’는 보성읍 봉산리에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548㎡ 규모로 건립됐다.

아트밸리는 판매전시동(1동/3층)과 문화체험 공간(5동)으로 이뤄졌다. 녹차아울렛, 식당, 카페, 발마사지 등 먹거리·생활·체험이 집적화된 거점형 융복합센터로 운영된다.

보성농돈을 비롯해 쪽파 김치 등 보성 특산품을 활용한 식음료 판매에 특화돼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보성삼합’을 개발해 향토자원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성삼합은 녹차먹이 돼지(농돈)와 쪽파, 감자를 한꺼번에 구워먹는 메뉴다. 품질 좋은 보성농돈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농돈잡비 식당도 운영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트밸리가 붐재, 한국차박물관 등 보성문화관광 핵심시설과의 시너지를 통한 방문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밸리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티볼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고 지난해 5월 준공됐다. 지난달 주노커피주식회사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군 농식품 인프라 170억원 사업비 확보

### 2019년~2021년 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반 구축

고흥군이 중앙부처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공모에서 역대 최대인 170여억원의 사업을 유지했다.

고흥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국도비 62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170여억원의 공모 사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확보가 원활해지면서 대내외 경쟁력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은 지역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지를 돕는 시설이다.

농산물 원료와 그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 및 식품 소재화로 공급되는 가공식품으로 B2B

(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유통채널 다각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고흥군의 중앙부처 및 전남도 공모사업 확보액은 2019년 5개 분야 42억5500만원, 2020년 7개 분야 106억2400만원, 2021년 4개 분야 25억4400만원으로 전통식품 산업화 분야,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분야, 식품 기능성 평가 분야 등 총 7개 분야 사업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타지역산 및 수출시장 비교우위에서 경쟁력을 갖고 원료 확보, 품질가격 등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수도권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생산·가공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이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농가, 영농법인, 농협 등과 함께 시설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구례군, 산수유 활용 관광상품 발굴 나섰다

### 콘텐츠 발굴용역 최종보고

구례군이 자랑하는 산수유를 활용한 상품화와 관광자원, 소득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구례군은 최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세미나실에서 ‘산수유 관광콘텐츠 발굴용역 최종보고회’를 갖

고 산수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산수유에 대한 역사·인문학적인 자료를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보고회는 산수유 현황조사, 산수유 설화와 관련된 역사·인문학적 요소 정립, 산수유 콘텐츠 발굴과 사업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구례 산수유는 2008년 지리표시 제15호 등록, 2011년 구례산수유 산업 특구 지정,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비교우위 자원이 됐다. 군은 1993년부터 산수유꽃축제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으며, 음료, 환,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창출을 지원했다.

구례군은 산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수유 고목에 대한 관리 지원과, 초콜릿·중면·머핀·식혜 등을 개발해 주민에게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